ELIO’S LITTLE DISCOVERIES

Same Stars, Different Names

같은 별, 다른 이름 · 물고기와 오리 그림 말하기



11세 · Day 069 · 함께 읽기 · 3장면



On the warmest evening of summer, Mum spread a blanket on the slope behind the cottage. Elio and Bori lay on their backs. The sky was turning dark, and the first six stars had come out, close together in a little group.



“A fish!” said Elio, pointing. “Look, it is jumping. The top one is its nose, and the two at the bottom are its fins.” Bori looked hard at the same stars. “That is not a fish,” she said. “That is a duck, flying home.”



Elio pointed harder. “Look! Can’t you see it?” Bori pointed as well, and a paw and a wing crossed in the dark. From where each of them lay, the other seemed to be pointing at quite different stars.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저녁 하늘에서 별 여섯 개를 함께 세어 보고, 이 별들을 이으면 무엇처럼 보이는지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와 보리가 같은 별을 서로 다르게 본 장면에서 잠깐 멈추고, 같은 별이 각 그림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짚어 봐요.

생각 나누기

숟가락은 왜 좋은 이름이 되지 못했나요? 보리가 말한 기준을 찾아보고, 물고기와 오리와 주전자가 모두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생활에서

맑은 밤에 별을 보거나, 종이에 점 여섯 개를 찍어 각자 다른 그림으로 이어 봐요. 별자리 이름을 외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